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보륜 성오 대종사

정치인들, 부처님 '칠불쇠법' 마음에 새겨라

12면에 이어

갈등 반복하는 정치인들을 위한 당부
"자주 논의하고 모든 일 공명정대하고
서로를 이해 · 공경하면 나라는 발전해"


은사 장조 스님의 부도탑을 참배하고 있는 성오 스님.


성오 스님이 팔관선원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절에서 염불도 배우고 일도 하면서 지내다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은사스님 말씀에 따라 백양사로 갔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내외전에 두루 능통하신 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동국대를 졸업하신 것은 물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백양사가 청류암에 설립한 광성의숙(廣成義塾)에서도 정진하셨어요. 이때 측량, 제도, 산술 등을 공부하셨는데 훗날 주지로서 백양사의 산과 토지를 다 점검해서 재산목록을 정리했습니다. 28년간 백양사 주지 소임을 보면서 오늘날의 백양사 기틀을 다지셨습니다."

은사 장조 스님은 '생불(生佛)'이라며 주위의 존경을 받았다. 성오 스님은 그와 관련한 일화도 소개했다.

"한국전쟁 당시 일입니다. 하루는 저녁에 촛불을 켜놓고 앉아 〈능엄경〉을 보고 계시는데 북한군이 와서 문을 확 열어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없네'하고 그냥 갔다고 해요. 두세 번을 그랬다고 합니다. 동네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군이 다녀가서 큰스님 신변에 무슨 일이 없나 하고 가서 보면 스님이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방에 부처님만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백양사에 생불이 계시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성오 스님은 장조 스님을 "부처님 다음 부처님"이라고 했다. 이런 장조 스님이 성오 스님에게 항상 강조하던 말씀은 "중노릇 잘하라"였다.

장조 스님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성오 스님은 백양사 강원을 졸업하고 설호 스님에게 대교과정을 마친 뒤 이(理)와 사(事)를 넘나들며 정진을 계속했다.

"설호 스님께 경전의 체계와 구성을 배웠습니다. 경전을 찬찬히 보면 그 많은 글자에 덧붙은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호 큰스님께서는 특히 은과(隱科)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전에 숨어있는 맥, 숨겨진 뜻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선교(禪敎)에 능통한 성오 스님은 염불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스님은 '송문관의(誦文觀義)'를 강조했다. 소리 내어 경전을 외우면서도 마음으로는 뜻을 이해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生命의 작업, 불복장작법

성오 스님은 최선을 다해 은사 장조 스님을 시봉했다. 은사스님을 통해 백양사의 역사도 알아가게 되었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전국의 모범사찰입니다. 잘 아시듯이 수많은 선지식들의 법향(法香)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교학(敎學)면에서 보면 설파·연담·백파·환응·석전·만암 스님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선(禪)으로는 학명·서옹·청화 스님 같은 대선사가 계셨습니다. 염불수행도 전통이 있습니다. 백파 스님께서 정리해놓은 〈작법귀감〉이 기본 바탕이 돼 안진호 스님의 〈석문의범〉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양사에서 염불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양사에서의 단련을 마치고 장조 스님과 함께 성오 스님은 1970년대 초반 심향사로 왔다. 대웅전과 미륵전, 요사채가 전부였지만 심향사에 와서는 심상치 않은 인연의 기운을 느꼈다.

"심향사 부처님에서 나온 복장기에 '정통 성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통은 물을 관리하는 소임입니다. 나주제일약수로 꼽혔던 우물이 심향사에 있었거든요. 또 담양 호국사 복장 봉안의식을 행할 때 1660년에 조성됐다는 조성발원문을 확인했는데 당시 증명법사 법명이 저와 같은 성오(性悟)였습니다. 불복장에서 나온 기록마다 '성오 스님'을 만나다 보니 심향사와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과 저는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오 스님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의 전승 보유자다. 불복장작법과의 인연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은사스님께서는 모든 것에 다 능통하셨고 그중에서도 의식에 아주 밝으셨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큰스님께 구체적으로 배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큰스님 시봉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공부했을 뿐입니다. 복장의식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처님은 미술품이나 조각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장의식과 점안의식이 여법하게 이뤄져야 예배 대상으로서의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성오 스님은 백양사 사천왕, 보은 법주사 팔상전, 공주 동학사, 완주 송광사, 세종 영평사, 광주 마하보리사 등에서 수십여 차례 불복장작법을 설행했다. 스님은 불복장작법의 의미와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복장은 생명의 기본에서부터 최고의 깨달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과정을 보면 먼저 오장 안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오곡입니다. 오곡은 음식이고 인간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식량이 충족되면 금전이 필요해요. 그것이 오보입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건강, 오약이며 마지막으로 품위, 오향이 요구됩니다. 오황도 이와 비슷해요. 오개자는 모든 종자의 근본입니다. 갖출 것을 다 갖추고 나면 필요한 것은 부처님과 같은 성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채번이 들어가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진짜 나는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본질을 찾는 것이죠.

그다음 오색사가 들어가요. 오색사는 잡된 것, 쉽게 말하면 악마 같은 것을 정화하는 하나의 성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아름다운 꽃도 피어납니다. 다음으로 오보리수엽인데, 보리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이죠. 보리수는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오길상초는 깨닫지 않고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돈독한 마음을 뜻합니다. 오산개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음을 말합니다. 원초적인 것부터 발심하여 진짜 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는 마음을 거쳐 깨달음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금강저는 깨달음을 얻었기에 자연 전체가 부처님께 감복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을 부처님의 몸 안에 모시는 것이 불복장작법입니다. 말하자면 부처님 형상 안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과정 전체를 집어넣는 것이죠. 깨달음은 욕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은 복장을 행하고 이해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불복장작법에 이어 성오 스님은 수행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저도 깨치지를 못해서 뭐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심안(心眼)이 열려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만 사야다 존자와 그 제자 바수반두 존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한 끼만 먹고 눕지도 않으며, 청정하여 욕심이 없어서 대중들의 귀의할 바가 된 바수반두를 교화하면서 사야다 존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도를 구하지 않되 그렇다고 전도되지도 않으며, 나는 예불하지 않되 그렇다고 업신여기지도 않으며, 나는 늘 앉아 있지 않되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으며, 나는 한 끼만 먹지 않되 그렇다고 잡식하지도 않으며, 나는 만족함을 알지 못하되 그렇다고 탐욕하지도 않음이라.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없음이 이름하여 도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바수반두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행정진은 사야다 존자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불자라면 모름지기 인과(因果)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생의 일이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현생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 내생이 궁금한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欲知全生事 今生受者視 欲知未來事 今生作者視)' 인과의 지중함을 알아야 진짜 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박혀있는 성오 스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스님에게 '화합'에 대한 말씀을 청했다. 연초부터 진행된 '선거 전쟁'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칠불쇠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모여 논의하고 모든 일이 공명정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수행자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발전하고 국민들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성오 스님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고 했다. "머리 위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떨어지지 않게 모신다"는 것이다. 불행수행(佛行修行)을 실천하는 성오 스님의 신심(信心)과 원력(願力)은 쉴 생각이 전혀 없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유철주 / 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